국도 7호선(부산에서 울진까지)

- 국도답사 -

노 관 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구불구불한 2차로 국도를 타고 동해를 배경삼아 지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내륙 쪽의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태봉터널과 고봉터널을 통과하니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나오고 다시 월천터널을 만나고, 조금 지나니 월천교가 나오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공사 중이어서, 다시 기존의 2차로 국도로 연결된다. 국도는 그 기능이 이동성의 도로여서 빨리 가는 것이 목표이고 이 구간을 자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겠다. 그러나 어쩌다 이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동도 하면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을 지나 기존 2차로 국도를 따라 간다. 산지부 도로를 통과하면서 '위험 / 급커브', '위험 /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표지가 갖가지 형상의 그림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일부 급곡선 구간에서는 곡선반경을 크게 하기 위하여 산을 깎아내리는 공사, 일명 '위험도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다. 일부 오르막 경사구간의 도로에서는 저속차량이 앞에 가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 오른쪽에 저속차량이 비켜서 갈 수 있도록 오르막차로를 설치한 구간도 있다. 간혹 이런 구간에서 저속차량이 오른쪽 옆(부가차로)으로 비키지 않고 오던 길(본선)을 줄기차게 가기도 하고, 일부 성질 급한 승용차 운전자들은 오른쪽의 저속차로로 추월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차 모든 차량을 맨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한 후 속도가 빠른 차량이 왼쪽으로 추월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사진을 찍다보면, 공사 관계자가 자기 현장을 찍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자기를 찍어서 고발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고 쫓아오는 경우

가 있다. 몇 해 전, 법규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상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찍히는 차량들이 경적을 크게 울려 놀래키거나, 주변 동네에서 자주 고발된 주민이 쫓아와서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이 제도가 법규 위반자를 줄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국민간의 상호불신을 야기시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특히 도로에서 사진을 찍는 일이 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카파라치 제도가 없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도는 임원항을 향하여 달린다. 도로의 배경에 어촌 항구와 바다가 깔린다. 도로 본선 옆으로는 별도의 부도로가 나 있다. 자전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니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런 구간이 동해안을 쭉 따라 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차도 옆으로 삭막한 가드레일이 아니라 소형 녹지대가 설치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남근공원인 해신당공원과 어촌민속전시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우는 장호항을 지난다. 용화해수욕장 입구에는 2차로 국도의 폭이 좁아서 별도의 보행전용교량이 특별한 자태와 채색으로 설치되어 있다. 높은 지형의 국도변 간이주차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장호항이 장관이다. 해안가 반대쪽으로는 4차로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도로가 완공될 즈음에는 비탈면 녹화를 하겠지만 현재는 산 비탈면 여러 군데가 황폐하게 깎여 있다.

삼척 근덕면 초곡리에는 황영조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세계제패 기념상'과 기념관이 있다. 근덕면 궁촌리부터는 다시 자동차전용도로가 시작된다. 본선의 최고 제한속도는 90km/h 이고 연결로 구간은 40km/h 이다. 여러 동네들의 외곽으로 통과하는 거의 고속도로 수준의 국도가 나 있다. 유명 해수욕장 앞을 지나는 기존의 국도 노선이 적정한 연변 개발과 함께 잘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삼척 오분동 오분교차로에서 끝나고, 시가지 입구 마을을 통과하는 4차로 기존 국도에 다시 연결된다. 제한속도는 60km/h 이다. 동일 노선에서 제한속도가 90km/h에서 60km/h

국도 7호선(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근덕IC(강원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로 갑자기 줄어드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진적인 속도 저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2차로 국도 구간에 종종 과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식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고, 가상 과속방지턱(이미지 험프)을 설치하고 있다. 과속 운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속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하겠으나, 진짜와 같게 보이는 가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운전자들이 다른 지켜야 할 도로교통시설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조만간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하겠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 동굴 관광도시 삼척' 이라는 문장과 함께 박쥐 형상의 대형 아치 조형물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다.

사직삼거리에서 직진 방향은 시청 가는 길이고, 국도 7호선은 우측으로 90도를 꺾어서 나아간다. 방향예고표지 및 방향표지 등 일련의 도로표지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헷갈리지는 않았으나, 만일 이러한 표지가 미비하다면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다.

국도 7호선은 삼척시내를 지나며, 좀 떨어진 바닷가로는 동해안의 기암괴석과 송림이 어우러진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안선을 따라 개설된 '새천년도로(정라해안도로)' 가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2월 31일부터 다음날 1월 1일까지 해맞이 행사가 개최되어, 일출관광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부터는 고속국도 65호선인 동해고속

국도 7호선(강원 삼척시 오분동)

국도가 시작된다. 기존의 2차로 고속국도와는 별개로 4차로 고속국도를 건설하여 2004년 말에 개통하였다. 동해시청 입구의 천곡사거리를 조금 지나서 구 동해고속도로 시작지점에는 교차로명이 없는 도로표지가 직진방향으로는 망상해수욕장과 묵호항을, 좌회전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쪽으로는 국도 7호선 노선번호와 함께 강릉 옥계를 안내하고 있다. 가장 최근 판으로 가져간 지도에는 묵호항 방향이 국도 7호선으로, 기존의 동해고속도로는 (구)동해고속도로로 표기되어 있다. 최근에 이러한 노선 변경 작업이 있어서 도로안내와 지도 표기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도로 옆에 '고속국도 5호선 / 동해선 / 출발점' 이라는 표석이 서 있다. 역사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이 생기면서, 기존 고속국도 노선은 국도로, 기존 국도는 시도로 쓰이는 셈이다. 그런가 하였더니, 묵호를 조금 지나 사문재교차로부터 신설고속국도 노선이 기존고속국도 노선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초구동의 초구교차로까지는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지정한 국도 7호선(2차로, 제한속도

국도 7호선(강원 동해시 망상동)

60km/h)과 기존의 국도 노선을 최근에 확장한 국도 7호선(4차로, 제한속도 70km/h)이 나란히 지나가서 너무 혼란스럽다. 도로 노선지정과 안내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해야 할 구간이다. 초구교차로에서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에 지정된 국도 7호선은 기존 국도에 연결된다.

고속국도 65호선, 동해고속국도의 망상IC(요금소) 진입 교차로를 지나서 망상역에서부터는 다시 기존의 2차로 국도이다. 역시 기존 도로는 비좁지만 오랜 길의 역사를 가진 만큼 운치가 있다. 도로가 평행으로 지나는 이곳 망상해수욕장은 동해바다 해수욕장중 가장 광활하고 쾌적하며, 오토캠핑장도 있다.

옥계를 지나 정동진으로 향하는 길은 옥계IC, 옥계해수욕장 입구부터 국도 7호선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구 동해고속도로와 기존의 7번 국도, 영동선 철길이 거의 붙어서 가고 있고, 조금 떨어져서 신설 동해고속도로가 나란히 간다. 구 동해고속도로의 국도 7호선은 2차로로 강릉 시가지의 서측 외곽으로 지나고 있다. 기존 국도 7호선은 관광지로 유명한 정동진을 지나는 2차로인데, 현재 7호선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강동에서부터 4차로로 확장되고, 강릉 시가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구 동해고속도로는 2차로로 고속도로로 이용할 당시에는 제한속도를 80km/h로 운영하였을 것이나, 국도 7호선으로 전환하고는 제한속도를 2차로 제한속도 60km/h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형은 좋은데 제한속도를 낮추어 운영하는 관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차들이 많아, 자동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한 과속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반대방향으로 가는 운전자가 친절하게도 경찰이 앞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며 알려준다. 도로교통 업무와 관계된 나로서, 그 친절함에 감사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합리한 속도 단속에 대해서는 운전자 대동단결!

그러나 최근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움직임은 도로교통과 안전에 좀 무지한 이들의 소행이며, 본 구간과 같은 제한속도 단속은 당연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로기능과 설계속도, 주행속도, 그리고 제한속도 등 도로건설 및 교통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속도의 명확한 정의와 적용 지침을 정립해야 하겠다.

도로 노선을 따라 운전자가 도로의 경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선유도시설이 기존 고속도로일 때 설치된 각형과 국도로 바뀌면서 설치한 것 같은 원형이 혼재되어 있고, 원형의 색상도 차선 노면표시 색상과 같게, 진행방향의 우측은 하얀색, 좌측은 노란색으로 시설 설치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 도로

국도로 전환된 구 동해고속도로(강릉)

헌화로(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관리자와 설치업체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래된 도로라서 도로주변의 자연이 안정화되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안전성을 높인다고 도로중앙선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해 놓은 시선유도봉은 흉물이 아닐 수 없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의 정동(正東)쪽에 자리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은 우리 나라 철도역 가운데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이래 바다, 철길, 소나무 풍경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과 동해바다 제일의 해맞이 명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정동진에서 남쪽으로 지역 도로를 타고 가면 심곡에서 금진까지 이어지는 '헌화로'라는 해안도로가 있다. 도로가 푸른 바다를 옆으로 해안을 끼고 굽이굽이 돌아들고, 노면이 해면과 차이가 많지 않아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파도가 도로까지 넘어와 장관을 연출한다. 옛날 '헌화가'에서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친 사건의 현장이 이 부근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헌화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쪽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좋다.

정동에서 안인까지의 기존의 국도 7호선 약 10km 구간은 해안로로 기찻길과 평행으로 달리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등명락가사, 하슬라 아트월드 조각공원, 통일공원과 함정전시관 등이 있다.

강릉시내의 돌아볼 만한 곳으로는 참소리박물관 → 초당두부마을 → 허균생가터 → 경포바다(횟집단지, 해수사우나) → 경포호수(경포대) → 선교장 → 오죽헌 코스가 추천되고 있다. 참소리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축음기, 오디오 등의 소리 전문 박물관이다. 92년 11월에 문 연 이 박물관

기존 국도 7호선(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에는 1899년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를 비롯해 모두 8백여점의 축음기와 10만장에 이르는 각종 음반과 음악 서적들이 전시되고 있다. 강릉 경포대 부근의 초당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초당두부는 강릉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경포대는 관동8경의 하나이다. 관동8경이란 대관령의 동쪽이라 하여 관동(關東)이라는 말이 붙여진 빼어난 풍광을 가진 여덟 명승지이다. 이들은 경북 평해의 월송정과 울진의 망양정, 강원도에 있는 삼척 죽서루,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사, 간성 청간정, 그리고 북한에 있는 고성 삼일포, 통천 총석정 등을 말한다.

구 동해고속도로의 국도 7호선은 강릉시가지의 북서쪽인 죽헌교차로에서 끝나고 기존의 시가지를 지나는 4차로 국도에 연결된다. 제한속도는 다시 80km/h가 된다.

강릉에서 주문진까지의 4차로 구간은 너무 재미없다. 무더운 날에 차안에 갇혀 운전하는 즐거움(?) 외에는. 본 구간은 내륙을 통과하는데, 양쪽에 가드레일만이 연달아 있을 뿐이다.

동해와 강릉 지역의 도로망 시스템은 고속국도 65호선, 동해고속도로가 주간선 역할을 하고, 4차로 국도 7호선이 보조간선도로로, 그 지역의 주도로가 집산도로 역할을, 해안선을 따라 별도의 지역도로는 국지도로로 이용되는 좋은 연계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조금만 더 체계화되고, 연계 안내체계가 보완된다면 좋겠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자마자, 주문진을 벗어나고 지경해수욕장 앞을 지나니, 이곳은 국도7호선이 바로 해안을 따라 가고, 해안도로인 지선도로도 자동차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한편, 국도상에 보행시설이 없고 보행자 횡단도 많아 이동성 간선도로와 접근성 국지도로의 도로망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주문진을 떠나 양양에 이르기까지 남애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낙산해수욕장 등을 비롯한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연달아 나타난다. 국도 7호선이 이들 도로를 직결로 집분산 교통처리를 하고 있어서 접근관리를 통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내륙 쪽으로는 동해고속도로가 공사중에 있다.

양양군 현북면 구간을 지나는데, 해변의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국도 휴게소의 이름이 '38선 휴게소' 이다. 38선 표지석이 1988년 10월에 휴게소 광장에 세워졌는데, 2001년 6월에 차량 접촉사고로 표지석 하단이 파손되어, 15m 아래의 안전한 현 위치에 복원되었다.

하조대 해수욕장 직전의 하조대는 조선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이 은거하였다 하여 두 사람의 성을 따 이름지어진 곳으로 기암괴석과 해안절벽 사이 아슬아슬한 노송의 풍취가 인상적이며, 일출이 장관이라 한다.

국도 7호선의 38선휴게소(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양양군 손양면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을 지난다. 공항 진입로 IC는 국도 7호선인 본선이 아래로 통과하고, 그 위로 부도로가 지나가서 바람직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접속(연결)되는 곳이 많아 지하통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마을 앞 보행자 주의' 라는 표지에 '안전속도 60' 이라고 적혀 있다. 80km/h로 달려오다가 표지에 60km/h라고 적혀 있어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얼마나 되며, 주행속도 60km/h가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안전한 속도가 될른지 모르겠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어야 할 선, 음주, 무면허, 과속' 이라는 안내문이 있다. 정말 그렇다.

속초시에 들어서자마자 설악산 진입로가 있는 곳에는 바닷가 쪽으로 설악해맞이공원이 있다. 희망의 광장, 해맞이광장 등 여러 이름의 소광장과 연인의 길, 사랑의 길 등이 있고, 수많은 예술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다. 해마다 8월 중순에는 속초시 주관으로 일주일간 '속초해양 Festival' 을 여는 것 같은데, 안내장 맨 뒷면의 속초시관광안내도에는 도로번호는 전혀 없이 노선만 그어져 있고, 시설명만 표기되어 있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노선번호를 필히 적어 놓아야 하겠다.

속초시 중심에는 청초호가 있어서 도로가 외곽으로 굽어 있고, 시청을 지나 해안 쪽의 시가지를 지나는 기존의 국도 7호선과 시청방향으로 가다가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나가서 우회하는 국도 7호선이 있는데, 시가지 도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로표지 안내도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도로표지의 색상은 국도를 비롯한 지방부는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도시부는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쓰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 내를 통과하는 국도에는 노선안내의 일관성을 위하여 도시부에서도 지방부 도로표지 색상인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표지를 사용하고, 신설국도는 그대로 국도번호만 표기(타원형 청색 바탕에 흰색 숫자)하되, 기존국도는 노선번호 앞에 '구' 또는 '옛' 등 기존의 도로임을 표기하거나, 타원형 바탕색을 달리 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 같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다.

북으로 북으로 달려, 도로 우측 바닷가로는 송지호해수욕장이, 좌측으로는 송지호가 있는 고성군 죽왕면을 지나고 고성군청이 있는 간성읍을 만난다. 옛날의 국도는 간성읍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의 국도는 읍내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지난다. 진부령을 넘는 국도 46호선의 시작점에서 삼지 입체교차를 하고, 이제부터는 인적인 드문 곳으로 간다. 거진읍 입구의 자산리 자산삼거리에서 4차로는 끝나고 이후로는 2차로 이다. 그러나 간성에서 현내에 이르

국도 7호선(강원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는 구간이 4차로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이어지는 금강산 가는 육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차로 도로에 들어서 조금을 가면,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이 있는 화진포호 진입로를 만난다. 꽃이 많아 화진포(花津浦)라 불리는 호수로 둘레가 16㎞에 이르는 석호이다. 화진포 또한 인기드라마의 촬영지로 소개되면서부터 많은 여행객들이 들린다. 최근에는 해양박물관도 들어섰다. 전국적으로 해양박물관은 많은데, 도로박물관은 하나도 없다. 하나쯤은 있을 만도 한데.

통일전망대에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통일안보교육관(문의: (033)682-0088 www.tongiltour.co.kr)에서 입장료와 주차비를 미리 내고, 출입신청서도 쓰고 짤막한 지역홍보 수준의 안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름 휴가철 토요일로, 아침 일찍 나온 관광객들이 많은데, 문 여는 시간이 오전 9시라서 찌는 날씨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왕짜증이 나 있다. 특별한 기간에는 개방 시간을 당길 수 없는지. 이것도 국민/고객 편의주의가 아니라 관리자 입장의 구태의연한 운영방식인 것 같다.

국도 7호선은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고 계속 북으로 가는데, 현재는 2차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이고 4차로 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

'여기서부터는 민통선입니다.' 군인에게 신고서를 내고 출입증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 남북연결도로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건설이 한창이다.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의 금강산 끄트머리인 구선봉(낙타봉)과 해금강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부지 내에는 부처상, 성모마리아상 등이 북쪽을 바라보고 통일을 기원하고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우리가 현재 갈 수 있는 국도 7호선은 통일전망대 언덕이 끝이다. 조만간 새로 나는 남북연결도로 국도 7호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주로 동해안을 따라 나 있는 국도 7호선을 달리며 다양한 도로시설을 만났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 모두를 여기에 정리할 수는 없다.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주마간산 격으로 도로를 달리고 멈추며 겨우 기록을 남겼다. 또한 국도 7호선 주변의 경관 좋은 도로나 문화재, 관광지 등을 들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좋은 도로, 개선할 점이 있는 도로 등을 만나며, 각 지역별, 도로관리기관별로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특색있는 사례를 모아서, 체계화 내지는 통일화할 것은 그렇게 하고,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범 사례로 널리 알리고, 이를 본받아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로공무원 협의회나 포럼 등을 운영하고, 더 좋은 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